

I. 서론 : 연구의 목적과 의의	Ⅲ. 연구결과
Ⅱ. 연구방법	Ⅳ. 결론

I. 서론 : 연구의 목적과 의의

아동학대라 하면 많은 사람이 표현할 수도 없이 흉악한 행위라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막상 “아동학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는 아동학대란 개념이 한 특정사회가 어떤 아동양육방법을 “정상적” 또는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양육과 아동학대사이의 선을 어디에다 그어야 하는 지는 매우 힘든 문제이다. 미국과 같이 문화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공존하는 곳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아동양육방법은 바로

* 필자의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Social Welfare (1990. 10) 박사학위논문 “Intimacy and Discipline in Family Life : A Cross-cultural Analysis with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ractice in Child Abuse Prevention”은 아동학대에 관련된 아동양육태도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이다. 전체논문은 크게 성적 학대에 관련된 아동양육태도와 신체적 학대에 관련된 아동양육태도 2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번째 주제는 8개의 소주제로, 두번째 주제는 10개의 소주제로 나뉘어진다. 이 연구지에 실리는 논문은 두번째 주제의 소주제 10개 중 2개를 요약한 것이다.

** 연세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강사.

여러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역사적, 환경적 요소들의 산물이기 때문에 한 문화나 사회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양육방법이 또 다른 문화나 사회에서는 비정상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같은 문화나 사회 내에서도 시대나 역사의 변천에 따라 정상적인 아동양육방법에 대한 이해나 정의가 다를 수 있다. 과거에는 당연하고 옳다고 받아들여졌던 훈육방법이 현재에는 아동학대라고 간주될 수가 있는 것이다.¹⁾ 한때 미국에서는 게으른 아이를 심하게 때려 버릇을 고쳐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였다.²⁾ 그러나 현재 미국사회사업가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는 모든 신체적인 훈육은 아동에게 해롭다고 규정하고 이를 금지시키는데 목표를 둔 전국적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³⁾

아동학대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곧 아동학대의 규명, 치료와 예방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⁴⁾ 아동학대가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있어야 어디에서 누가 아동학대를 받고 있는지 찾아내고 치료할 수 있고 아동학대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아동학대 전문가들은 누구나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 미국은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이기에 아동학대를 다룰 때에도 각 문화의 독특한 양육방법을 존중하여야 하며 한 문화의 독특한 양육방법을 사회사업가나 케이스를 취급하는 전문가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그러나 문화간의 직접적인 마찰이 있을 때 문제시되는 양육방법이 아동에게 해로운가 아닌가를 결정하는데는 대부분의 경우 백인문화⁵⁾의 아동양육방법

- 1) K. Wright, "Sociocultural Factors in Child Abuse", in B. Basas, G. Wyatt & G. Powell (Eds.), Afro-American Family : Assessment, Treatment and Research Issues, Grune & Stratton, Inc., 1982.
- 2) J. Giovannoni & R. Becerra, Defining Child Abuse, The Free Press, 1979.
- 3) NASW News, "Anti-Spanking Campaign Gets Support", NASW News Vol. 34, No. 4, 1989, p. 13.
- 4) M. P. Martin, 1977 Analysis of Child Abuse and Neglect Research, 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 U.S. Children's Bureau, Administration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Office of Human Development Services,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1978.
- 5) 본 논문에서 백인문화라고 하는 것은 미국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유럽출신의 백인종 중류층의 기독교문화를 말한다 (White, Anglo-Saxon, Protestant).

이 기준이 된다. 자신의 문화가 아닌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예로 한국인이 많이 이주해 거주하는 로스앤젤레스지역에서는 아직도 한국인 할아버지나 아저씨들이 귀엽다고 남자아이의 성기를 만져 성적학대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⁶⁾ 백인문화와 상이한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문화에서 자라는 사람이 미국에 새로 이민와 적응하는 도중 그의 행동이 “비정상” 이라고 오해받기는 어렵지 않다. “정상”이라는 개념은 사회나 문화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⁷⁾ 미국의 아동학대 케이스들 중 거의 1/3이 소수문화권의 가족들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러한 현상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⁸⁾

서로 다른 문화에서는 진정 다른 아동양육방법이 사용되고 있는가? 만약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아동양육방법은 한 문화의 특수한 아동양육목표, 신념, 가치관, 지역적 그리고 역사적 조건들을 반영하는가? 이 조사는 바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분명할 때에야 비로소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진정한 의미에서 충분한 문화적 이해를 갖고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II. 연구방법

1. 표본추출

이 조사는 미국내에 거주하는 6개 인종집단의 어머니들과의 전화면접을

- 6) E. Gray & J. Cosgrove, "Ethnocentric Perception of Childrearing Practices in Protective Services", Child Abuse and Neglect, Vol.9, No.3, 1985, pp.389-396.
- 7) Hankuk Daily, "Caucasian Boy's Genital Incident Occurs Again", Hankuk Daily, Chicago, June 23, 1990.
- 8) K. Horney, The Neurotic Personality of Our Time, Norton, 1937, M. McGoldrick, "Ethnic Family Therapy : Overview", in M. McGoldrick, J. K. Pearce & J. Giordano (Eds.), Ethnicity and Family Therapy, Guildford Press, 1982, pp.3-30 재인용.
- 9) K. Burdorf, Recognition and Reporting of Child Maltreatment: Findings from the National Study of the Incidence and Severity of Child Abuse and Neglect, Westat, Inc., 1980. J. Alfaro, "Child Neglect and Cultural Tradition", Human Ecology Forum, Vol. 12, 1981, pp. 26-30 재인용.

통해 이루어진 단면조사이다. 이 조사에 참여한 표본수는 총 364로서 한국인 56명, 백인 57명, 흑인 95명, 히스패닉¹⁰ 96명, 베트남인 30명, 그리고 캄보디아인이 30명이었다. 모든 면접은 응답자들과 같은 인종의 여성이 실시하였다. 한국인, 베트남인, 캄보디아인과 스페인어를 하는 히스패닉은 번역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각 인종의 고유한 언어로 실시되었다.

대부분의 표본은 종교집단에서 추출되었다. 종교집단은 미국 내에서 드물게 동일한 인종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방법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2. 측정도구

여러 문화에 있어서의 양육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예를 구상하였다. 예가 묘사하는 부모 자녀 상호작용이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답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다(예. 한 어머니가 수퍼에서 사탕을 사달라고 우는 3살짜리 딸에게 울음을 그치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이 “예”의 경우: 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이 “아니오”의 경우: 왜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의 내용은 크게 가족간의 신체적인 친밀도 (잡자는 관습, 목욕하는 관습, 가족간의 신체적인 접촉)와 훈육방법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본 논문에서는 후자 즉 훈육방법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에 관련된 결과의 일부만을 보고하고자 한다.

Ⅲ. 연구결과

1. 체벌의 효율성에 대한 견해의 차이

이 사회조사에 참여한 인종집단들은 훈육방법의 한 종류로서 체벌의 효과에 대해서 큰 견해 차이를 보였다 (표1 참조). 6개 인종집단중 흑인은 거의 대부분이 체벌이 효과적이라고 답하여 체벌의 효율성에 대한 가장 강한 신념을 표시하였다. 한국인과 백인 각각 거의 78%가 체벌의 효과들 인

10) 히스패닉이란 중남미출신의 미국인을 말한다. 본 조사에 참여한 히스패닉의 대다수는 멕시코출신이었다.

표1: 체벌의 효과: 인종집단간의 견해차이

인종집단

	백인 (n=56)	흑인 (n=95)	히스패닉 (n=96)	한국인 (n=57)	베트남인 (n=30)	캄보디아인 (n=30)	합계 (n=364)
질문에 대한 답이 "예"일 경우[a] - (%)							
당신은 체벌이 자녀훈육의 일종으로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7.8	95.8	45.8	78.6	58.6	36.7	69.2***

***p < .001

[a] P value는 X 통계처리를 통해 얻었다.

경합으로서 다음을 이었다. 체벌의 효과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집단은 캄보디아인이었고 다음은 히스패닉이었다. 베트남인은 중간으로 60% 가까이가 체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현재 미국내에서는 전문가들사이에 체벌의 적합성에 대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는 체벌이 절대로 옳지 못한 훈육방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는 상황에 따라 적합할 때도 있다고 강조한다. 캄보디아인과 히스패닉을 제외하고 이 조사에 참여한 각 인종집단 응답자의 대다수는 체벌이 훈육방법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체벌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응답자들 중 많은 이들이 어리고 고집이 센 아이들은 체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흑인은 일반적으로 세벌은 없어서는 아니되는 훈육방법의 일종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태도는 주로 다음 열거되는 세 가지의 원인에 의해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흑인은 기독교의 깊은 영향을 받아 성경의 "매를

- 11) R. Lassiter, "Child Rearing in Black Families : Child Abusing Discipline?" in R. Hampton (Ed.), Violence in the Black Family: Correlates and Consequences, Lexington Books, 1987.
- 12) K. Alvy, Black Parenting: Strategies for Training, Irvington Publishers, Inc., 1988.
P. M. Hines & N. Boyd-Franklin, "Black Families", in M. McGoldrick, J. K. Pearce & J. Giordano (Eds.), Ethnicity and Family Therapy, Guildford Press, 1982.

안 들면 아이를 그릇친다”라는 내용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체벌에 대해 긍정적이다. 들깨의 이유는 노예제도가 남긴 유산물이다. 노예시대에 흑인들은 아이들을 지체없이 심하게 벌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이는 아이들로 하여금 권위/권력 앞에서 유순하고 복종하게 하는 훈육만이 그들을 탈없이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아동양육방법은 흔히 그의 발달과는 상관없이 무의식중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된다.¹⁴ 세제는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현재 미국에는 실제적 의미에서의 노예제도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의 심리적 산물로서의 노예제도는 남아 있다는 점이다. 노예시대 당시의 험악한 환경은 사실상 현재 많은 흑인이 경험하는 빈곤, 실업, 열등한 교육환경과 인종차별로서 대체되었다고 강조한다.¹⁵ 많은 흑인부모들은 아이들을 이러한 악조건으로부터 보호하고 그에 저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워주어야 하기 때문에 훈육은 그들에게 생존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조건이었던 것이다. 노예시대에 아이들이 주인들의 횡포에 대처하게 도왔던 훈육은 오늘날 십대임신, 학교중퇴, 마약, 알콜중독, 범죄와 실업의 문제들을 피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¹⁶ 저수입 흑인들과 중류층 백인들을 비교한 Alvy¹⁷의 사회조사에서 전자의 6%가 훗날 아이들이 경찰과 같은 가족 아닌 사람들에게 구타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 아이들을 때려 교육한다고 답했다는 사실은 여러 흑인들이 오늘날도 겪고 있는 힘든 생활의 일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R. Lassiter, 1987, op. cit.

R. Staples, "The Black American Family", in C. Mindel, R. Habenstein, & R. Wright (Eds.), Ethnic Families in America: Patterns and Variations (3rd ed.), Elsevier, 1988.

K. Wright, "Sociocultural Factors in Child Abuse", in B. Basas, G. Wyatt & G. Powell (Eds.), Afro-American Family: Assessment, Treatment and Research Issues, Grune & Stratton, Inc., 1982.

13) P. M. Hines & N. Boyd-Franklin, 1982, op. cit.

14) Lassiter, 1987, op. cit.

15) K. Alvy, 1988, op. cit.

P. M. Hines & N. Boyd-Franklin, 1982, op. cit.

R. Lassiter, 1987, op. cit.

R. Staples, 1988, op. cit.

K. Wright, 1982, op. cit.

16) Alvy, 1988, op. cit.

Lassiter, 1987, op. cit.

17) Alvy, 1988, op. cit.

본 조사의 흑인들도 체벌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그들은 아픔은 아동들로 하여금 나쁜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억하게 한다고 말하였다 (다른 인종집단들의 많은 응답자들도 유사한 설명을 하였다). 체벌은 아동들로 하여금 집안에서는 부모들이 최대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다고도 하였다:

- 아이로 하여금 누가 힘이 있는지를 기억하게 한다.
-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을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는 때린다. 그러나 반드시 때를 맞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몇명의 흑인은 "아이가 전혀 때를 안 맞으면 부모에게 사랑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라고 함으로써 체벌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표시라고 시사하였다. 이러한 답변은 체벌을 사랑의 표현으로 설명하는 베트남, 중국과 한국의 속담과도 통하는 면이 있다¹⁸. 흑인은 체벌을 자식의 앞날을 염려하는 부모의 사랑표현이자 중대한 임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¹⁹ 몇몇 흑인의 의견은 그들 사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기독교의 영향도 반영하였다:

-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징계의 때가 훈육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는다.

또한 6개 인종집단들 중 가장 많은 흑인(18%)이 스스로가 직접 체벌을 받아 보았거나 가해 보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대답하였다:

- 우리는 때를 맞으며 자라왔고 거기에 익숙해 있다. 말로 타이르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18) 월남: "자식이 밭거든 사탕을 주고; 사랑하거든 때를 들라".

중국: "때리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고, 혼을 내는 것은 곧 애정을 표시하는 것이다".

한국: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때를 더 든다".

19) Lassiter, 1987, *op.cit.*

일부 흑인들은 체벌은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는 절대 삼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답은 Alvy²⁰⁾의 조사에서 40%의 백인에 비해 오직 3%의 흑인만이 화가 난 상태에서 때린다고 답한 결과와 일치하는 듯 하다. 그의 조사에 참여한 흑인들도 본 조사의 흑인들과 같이 체벌은 자녀에게 올바른 사회행동, 권위에 대한 복종,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훈육방법이라 보았다.

한국인(78.6%)과 백인(77.8%)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체벌을 긍정적으로 보았으나 그 이유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모든 인종집단들 중 백인이 체벌에 대해서 가장 심한 양가감정을 보이는 듯했다. 백인의 거의 90%가 체벌은 오로지 아주 어린아이나 반항하는 아이에게만 적합하다는 등의 설명을 추가함으로써 그들의 체벌에 대한 지지의 강도를 완화하였다. 그 어떤 인종집단보다도 백인들은 그들이 체벌을 훈육방법의 일종으로 사용하는 이유를 정당화해야만 하는 듯했다. 그들은 흔히 "체벌의 문제에 대해서 오랜기간 신중히 생각했다", "다른 어느 방법도 통하지가 않아 할 수 없이 때렸다", 또는 "체벌은 딱 한 대로 끝나야 한다"는 등의 변명을 하였다. 이러한 감정들은 Alvy²¹⁾조사의 흑인응답자 (12%)에 비해 보다 많은 백인 (39%)이 체벌과 그의 효과에 대한 양가감정을 표시한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Alvy²²⁾조사의 백인 중 38%가 다른 어느 방법도 효과가 없을 때 때린다고 답한 반면 19%의 흑인이 같은 답을 하였다.

비록 한국인(78.6%)에 비해 적은 비율의 베트남인(58.6%)이 체벌을 효과적이라고 보았으나, 체벌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응답자만을 보면 백인보다 베트남인이 한국인과 유사한 듯하였다. 한국인과 베트남인은 전반적으로 백인들에 비해 체벌의 효과에 대한 보다 굳은 확신을 갖고 있는 듯했다. 체벌이 효과적이라고 믿는 베트남인들 중 대다수가 이는 아동들로 하여금 규율에 순종하게 한다고 하였고 한 베트남인은 체벌은 베트남인의 관습중 하나라고 말하였다:

- 미국관습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이는 베트남사람

20) Alvy, 1988, op.cit.

21) Ibid.

22) Ibid.

의 관습이다.

- 아이들은 심하게 벌을 주어야지 말을 잘 듣는다.

여러 한국인들도 베트남인과 비슷한 의사를 표명한 동시에 흑인들과 유사한 면도 있었다. 한 응답자는 아이들의 장래를 위하여 때려야만 하는 부모의 아픈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였다. 한국인은 충동적으로 자녀를 때리는 것에 대해 흑인들보다 한층 더 깊은 우려를 나타내었다. 그들은 부모들이 사전에 규율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잘못하였을 때 잘못에 적당한 체벌을 엄숙한 자세로 가하면 아이들은 체벌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부모가 감정적으로 때리지 않는 한 아이는 잘못된 대가로 아픔을 참을 수 있다.
- 미리 규칙을 정해 놓으면 효과적이다. 때리면 말을 듣는다.

한 한국인 응답자는 "미국아이들은 모르지만 한국아이들은 좋은 습관을 갖게 하려면 때려야한다. 때려 키워야만 부모가 원하는 아이들로 키울 수가 있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아동은 부모와는 분리된 하나의 개인으로서 그의 권리, 의견과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는 미국 백인문화의 가치관과 상반된다. 그녀의 의견은 아동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많은 백인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억압적이라고 보겠지만 이는 특정 문화 배경을 바탕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러 아시아문화의 부모들은 자녀를 자신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아동의 독립된 권리는 존재할 수도 문제시될 수도 없는 것이다. 부모는 자신이 자녀를 위해 무엇이 최선의 길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식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순종하고 존경할 것을 기대한다.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는 지는 부모의 책임이자 그들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훌륭히 하였는 지에 대한 척도이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도 때를 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특히 유교의 깊은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이나 베트남문화에서는 개인의 행복보다는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더 중요시된다. 자녀는 부모의 뜻을 따름으로써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에 대한 은혜를 갚도록 교육받아 강한 책임의식을 갖고

성장하는 것이다.²³⁾

일반적으로 체벌은 아이들이 규칙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원하는 문화에서 사용되는 듯하다(본 조사에서는 각각 다른 이유에서 비롯되었지만 흑인, 한국인, 베트남인이 순종심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체벌에 대해 보인 백인들의 혼란된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아동들에게 순종심을 키워주고 범례에 따르게 가르치는 것은 개성과 독창성을 강조하는 백인문화가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양육의 주요목표의 하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조사의 많은 백인 응답자들도 체벌이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는 아이에게 효과적이라고 보았다는 것은 흥미있는 사실이다.

본 조사의 백인들이 보인 체벌에 대한 주저는 최근 아동학대예방운동에서 비롯된 체벌반대 공공캠페인이 날로 강력히 전개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할 때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미국의 교육받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훈육할 때 체벌을 사용하지 말도록 충고하는 책이나 자료들을 끊임없이 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소리지르거나 때리지 않고 훈육하는 방법(Discipline without shouting or spanking) 이라는 제목의 책은 체벌을 아이들이 가장 처음 접하는 폭력의 모델이라고 설명한다."²⁴⁾ 자녀교육지도자의 원로 스포크박사도 보다 친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벌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체벌이 "힘이 옳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아동들로 하여금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한다"²⁵⁾고 말한다. 따라서 전문적인 의견에 의지하는 부모가 체벌을 사용할 경우에 지금의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심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때이다. 그러나 이러한 캠페인과 전문가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의 백인 중 대다수가 어느 정도 체벌의 효과를 인정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Alvy²⁶⁾의 조사에서도 고수입 백인 중 82%가 취학전 자녀들을 때린 적이 있었다고 답하였다.

다른 인종집단들과 달리 캄보디아인과 히스패닉의 대다수가 체벌이 훈육

23) Pan Asian Parent Education Project, Pan Asian Child Rearing Practices: Filipino, Japanese, Korean, Samoan, Vietnamese, The Pan Asian Parent Education Project, n.d.

24) J. Wychoff & B. Unell, Discipline without Shouting or Spanking, Meadowbook Books, 1984.

25) B. Spock, Dr. Spock on Parenting, Pocket Books, 1989, p.178.

26) Alvy, 1988, op.cit.

방법으로서 효과가 없다고 하였다. 많은 캄보디아인이 아이들은 말로 타일러야 한다고 한 반면 히스패닉은 자녀들이 갖고 있는 특권(예. 하루에 텔레비전을 몇 시간 볼 수 있는 권리)을 빼앗는 방법을 권유하였다. 그러면 체벌에 관한 태도에 있어서 캄보디아인과 히스패닉이 다른 인종집단들과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캄보디아는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국가이지만 중국문화의 강한 영향을 받은 베트남과는 달리 인도문화의 영향을 받아왔다. 또한 캄보디아인의 생활 방식은 베트남인에 비해 훨씬 철저한 불교의 지배를 받아왔다. 그들은 불교학과 중에서도 베트남에서 성하였던 중국계의 마하야나(Mahayana)가 아니고 스리랑카에서 비롯된 테라바다(Theravada) 전통을 따른다. 불교의 영향은 기본적으로 캄보디아인으로 하여금 각 개인의 타고난 운명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평화로운 인생관을 갖게 하는 듯하다. 즉 모든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독특한 운명에 맞는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그 길을 가로막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캄보디아인 가족의 경우에는 베트남 가족의 경우같이 개인이 가족이나 사회집단보다 부수적인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다. 부계중심이지만 캄보디아인 아버지는 유교문화권의 아버지같이 세력이 크지 않다.²⁷ 바로 이와 같은 전통과 신념들의 영향이 많은 캄보디아인 응답자들로 하여금 체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했는지 모른다. 한 아이가 이미 고유의 운명을 타고 태어난다면 부모라도 그 운명을 바꿀 힘은 갖고 있지 못하다. 오래된 캄보디아의 속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위에 심은 씨가 식물로 자라면 비료를 줄 필요가 없다”. 좋은 식물은 자연히 잘 자랄 것이고 나쁜 식물은 아무리 많은 물과 비료를 주어도 죽을 것이라는 뜻이다. 같은 이치로 불량한 아동은 아무리 체벌을 하여도 언제나 불량하게 남으리라는 것이다. 캄보디아인 부모들은 자녀를 그들이 전생에서 한 행동의 대가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²⁸

한편 많은 연구자료에 의하면 히스패닉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엄한 훈육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매우 관대하다고 한다. 자녀에게

27) R. Garry, "Cambodia", in E. Tepper (Ed.), Southeast Asian Exodus: From Tradition to Resettlement: Understanding Refugees from Laos, Kampuchea and Vietnam in Canada, The Canadian Asian Studies Association, 1982.

28) Siv, Personal Communications, 1989.

체벌을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특히 히스패닉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과잉보호” 하고 흔히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둔다고 한다.²⁹⁾ 본 조사의 대다수 히스패닉 응답자들이 체벌을 지지하지 않은 것도 그와 같은 자녀들에 대한 관대한 태도에서 비롯되었을 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흥미있는 현상은 다른 어느 인종집단보다 백인과 히스패닉이 체벌은 분노로부터 비롯되고 아동을 향한 폭력의 일종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다:

- 체벌은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가 감정조절을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한다. 이는 또한 아동에게 좌절하였거나 화가 났을 때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고 가르친다.
- 체벌은 아이에게 폭력이 괜찮다고 가르친다. 즉 몸이 큰 사람이 몸이 작은 사람을 힘으로 눌러도 된다고 가르친다.

2. 체벌로 인해 생긴 멍은 신체적 학대의 증거인가?

표2는 인종집단들이 3살, 9살, 15살의 아동이 심한 잘못을 한 결과 부모의 체벌을 받아 멍이 들었을 때 그것이 신체적 학대인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특히 9살의 아동에 경우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의견을 나타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6개 인종집단 중 같은 동남아 아시아민족 즉 베트남인과 캄보디아인이 제일 심한 의견차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거의 100%의

29) K. W. Bartz & E. S. Levine, "Childrearing by Black Parents: A Description and Comparison to Anglo and Chicano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0, 1978, pp.709-719.

C. Carillo, "Changing Norms of Hispanic Families: Implications for Treatment", in E. E. Jones & S. J. Korchin, Minority Mental Health, Praeger Publishers, 1982.

L. Escovar & P. Escovar, Child-rearing Practices among Hispanic Groups,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1981, L. Escovar & P. Escovar, "Retrospective Perception of Parental Child-rearing Practices in Three Culturally Different College Group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 9, 1985, pp.31-49 재인용.

E. S. Levine & K. V. Bartz, "Comparative Child-rearing Attitudes among Chicano, Anglo and Black Pare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Vol. 1, 1979, pp.165-178.

캄보디아인이 아동이 체벌에 의해 멍이 든 것을 신체적 학대의 경우로 본 한편 베트남인의 거의 90%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인과 흑인은 체벌에 의한 멍을 신체적 학대의 증거로 보지 않는 면에서 베트남인의 뒤를 이었다. 거의 50%의 한국인과 흑인이 9살과 15살난 아동이 체벌에 의해 멍이 든 사례를 신체적 학대로 보지 않았으나 3살의 경우에는 거의 80%가 학대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훈육방법으로서의 체벌의 효과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이었던 세 인종집단 (흑인, 한국인, 베트남인)이 체벌에 의한 멍을 신체적 학대의 증거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백인과 히스패닉의 거의 비슷한 비율의 응답자들이 이러한 훈육방법을 신체적 학대로 여겼으나 15살난 아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백인보다 약 15% 적은 수의 히스패닉이 이를 학대로 생각하였다.

현재 미국에서 아동학대를 다루는 경우 멍은 전문인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신체적 학대의 증거의 일종으로서 흔히 이용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공립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필수로 시행되는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에서도 어른이 아동에게 멍이나 상처를 남기면 신체적 학대이고 반드시 선생님이나

표2: "멍은 신체적 학대의 증거인가?": 인종집단간의 견해차이

	인종집단						
	백인 (n=55)	흑인 (n=95)	히스패닉 (n=96)	한국인 (n=57)	베트남인 (n=30)	캄보디아인 (n=30)	합계 (n=364)
질문에 대한 답이 "예"일 경우[a] - (%)							
3살난 아들							
3살난 아들이 심한 잘못을 한 결과 부모의 체벌을 받아 멍이 들었다면 신체적 학대라고 생각하십니까?	89.6	78.5	88.3	75.4	14.8	100.0	79.1***
9살난 아들							
9살난 아들이 심한 잘못을 한 결과 부모의 체벌을 받아 멍이 들었다면 신체적	89.1	48.2	83.7	40.4	6.9	100.0	63.1***

학대라고 생각하십니까?

15살난 아들

15살난 아들이 심한 잘못을

한 결과 부모의 체벌을 91.7 53.3 77.8 53.6 6.7 96.7 64.8***
받아 명이 들었다면 신체적
학대라고 생각하십니까?

***p < .001

[a] P value는 X 통계처리를 통해 얻었다.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오로지 10% 정도의 베트남인이 아들이 부모의 체벌에 의해 명이 든 것을 학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사례를 학대로 여기지 않은 베트남인들의 대부분이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다치거나 학대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그들은 아이들이 매우 심한 잘못을 했을 때 부모들이 세게 때릴 경우가 가끔 있다고 답하였다:

- 그 어느 부모도 자신의 자식을 학대하지 않는다.
- 부모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때린다.

그들은 부모가 아이를 학대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를 용납하지 못하는 듯 했다.

한국인에게서도 비슷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 많은 이들이 아동에게 벌을 주는 것은 아동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부모의 책임이다. 부모는 아동을 명들게 할 의도가 없었다. 또는 잘못을 고치기 위한 벌이라면 학대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부모는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때리는 것이지 명들게 하려고 때리는 것이 아니다.

30) K. Belland, Talking about Touching II, Committee for Children, 1986.

Child Assault Prevention Training Center of Northern California, Preschool Project Training Manual, CAP Training Center, 1983.

- 아동이 심한 잘못을 했으면 그럴 수도 있다. 부모의 매는 학대가 아니다.

송³¹⁾은 로스앤젤레스에 이민 온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6%가 신체적 학대에 대한 미국 법은 한국아동양육방법과 충돌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조사의 많은 한국인들도 체벌이 백인문화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듯했다. 한 응답자는 매를 맞는 편이 아동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덜 갖게 한다고 하며 체벌이 아동들에게 왜 필요한 지를 장황하게 설명하기까지 했다. 몇명의 응답자들은 강한 어조로 “그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학대합니까?” 라고 되물었다. 모든 부모는 언제나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철저히 믿는 듯했다. 그러나 한 한국인과 베트남인은 친부모가 아닐 경우에는 아동학대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암시하였다:

- 친자식이려면 학대가 아니다.
- 계모나 계부라면 학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전술은 한국인과 베트남인에게 혈연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쉽게 의심을 사게 되는 듯하다. 친부모는 언제나 친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나 자신이 직접 낳지 않은 자식은 친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지 못한다는 믿음이 있는 듯하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한국이나 베트남 두 민족만에 특유한 것은 아니겠으나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의 신성함을 믿는 유교적 영향이 이를 더 절실히 한다고 본다.

아동이 체벌에 의해 멍이 든 경우를 학대로 간주하지 않은 흑인들도 부모의 의도는 자식을 훈육하는 데 있었지 멍을 들게 하는 데 있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한국인과 베트남인에 비해 보다 많은 흑인들이 아이에 따라 멍이 쉽게 드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멍자체를 학대와 연관지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31) K. Song, Defining Child Abuse: Korean Community Study,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86.

- 쉽게 멍이 드는 아이일 수 있다. 부모는 벌써 괴로워하고 있을 것이다.
- 아이를 다치게 하려고 때린 것이 아니고 아이의 잘못을 고치려고 한 것이다. 부모의 마음상태와 의도를 고려해야 한다.

몇몇 흑인들은 부모의 생각을 전달하고 아이가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한 응답자는 “좀 심하지만 괜찮다.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살인당하지 않게 하려면 채찍질을 해야한다” 고 답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흑인들이 훈육을 사회의 여러 위험한 존재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방편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시사해 주는 듯하다.

백인과 히스패닉 중 체벌에 의한 멍을 학대가 아니라고 본 응답자들 대부분이 신체적 학대의 정의는 그런 일이 몇번이나 있었는지, 멍이 얼마나 심한지와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야만 내릴 수 있다고 하였다:

- 학대가 아닐 것이다. 학대는 사건의 빈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한두번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 신체적 학대는 멍이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정의되어야 한다. 멍이 하나 정도 있으면 학대가 아니다. 어떤 아이는 쉽게 멍이 들기 때문에.

반면, 아동이 체벌에 의해 멍이 든 경우를 신체적 학대로 본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아이의 몸에 멍을 남긴 것은 벌이 너무 심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 그 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잠시의 아픔을 주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 멍이 들 정도로 때리는 것은 너무 심하다.

몇몇 응답자들은 아동에게 멍이 남은 것은 부모가 감정적이었다는 증거라고 답했다:

- 부모의 감정해소를 위한 체벌인 듯하다.
- 부모가 너무 화가 나 있어 자신의 손을 조절하지 못하였다.

또한 묘사된 사례를 학대로 본 캄보디아인의 12.0% 와 한국인의 8.7%가 그러한 행동은 미국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하였다:

- 미국에서는 벌을 주다 아동의 몸에 멍을 남기는 것은 분명히 학대이다.
- 미국에서는 위법이다.

일반적으로 보다 많은 응답자들이 9살난 아동의 경우보다 3살난 아동이 체벌에 의해 멍이 든 경우를 학대로 보았다. 대부분이 3살난 아이를 멍이 들 정도로 때리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였다. 반면, 15살난 아동의 경우를 학대라고 본 응답자의 비율은 9살난 아동의 경우와 비슷하였다.

IV. 결론

1. 연구결과의 의의

본 조사결과는 훈육방법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인종집단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꼭 모든 문화의 모든 행동을 수용해야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분명히 아동에게 신체적인 해를 끼치고 미국 대다수의 지역사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화적 관습도 상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를 분명히 규명하여 이를 방지하고 근절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와 훈육방법간의 구별을 분명히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본 조사가 밝힌 바 같이 아동훈육방법에 대한 태도는 각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인 상황을 포함한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명백히 하지 않고는 여러 가정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호할 수 없는 것이다.

훈육방법, 특히 체벌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인종집단간의 차이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일반 부모들과 전문가들 사이의 견해차가 더 심각한 문제임을 여러 조사가 입증하고 있다. 영국의 한 조사는 아동학대가 심하다는 이

유로 가정에서 아동을 격리할 때 사회사업가가 사용하는 기준이 일반부모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기준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관찰하였다.³²⁾ 사회사업가들이 정기적인 체벌을 아동을 가정에서 격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 반면 일반시민들은 화가 나서 폭발적으로 때리는 것을 더 심하게 생각했다(본 조사의 응답자들도 화가 난 상태에서 체벌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면에서 유사하다). 일반시민들은 전통적인 체벌방식을 사용한 부모로부터 아동을 격리시키는 것을 반대하였다.

최근 미국에서는 체벌반대운동이 여러 전문단체들에 의해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사회사업가협회는 모든 체벌이 아동에게 해롭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체벌반대의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³³⁾ 이는 아동학대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사업가의 간절한 소망에서 비롯된 행동일 것이고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체벌 그 자체가 아동에게 해롭다는 것을 증명한 조사는 아직 하나도 없다. 체벌의 사용빈도가 높아질에 따라 아동이 신체적인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한 관계도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부모가 스스로의 행동을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와 같은 요인들이 더 중요할 지도 모른다.³⁴⁾ Trickett & Susman³⁵⁾은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입증된 가정과 보통 가정을 비교한 조사에서 체벌의 효과를 믿고 사용하는 것과 아동학대를 가하는 것과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음을 밝혔다. 신체적 학대를 한 가정은 아동양육관습이나 가치관의 여러 면에서 보통 가정과 달랐으나 체벌에 대한 태도에서 만은 유사하였다. 5단계의 척도 (1 = 체벌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믿음, 5 = 체벌이 중요하다고 믿음)를 사용했을 때 보통가정은 평균 2.44점을 기록한 반면 신체학대 가정은 2.33을 기록하였다.

83명의 성인을 조사한 Christopher³⁶⁾의 연구에 의하면 연구대상 중 9명이

32) R. J. Christopher, "Public Perception of Child Abuse and the Need for Intervention: Are Professionals Seen as Abusers?", Child Abuse & Neglect, Vol. 7, 1982, pp.435-442.

33) NASW, 1989, op.cit.

34) Giovannoni & Becerra, 1979, op.cit.

35) P. Trickett & E. Susman,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rearing Practices in Physically Abusive and Nonabusive Families", Development Psychology, Vol. 24, No. 2, 1988, pp.270-276.

36) Christopher, 1982, op.cit.

어린시절 부모로부터 학대받았다고 생각했다. 9명 모두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다고 느꼈으나 도구에 의해 또는 노출된 엉덩이에 매를 맞은 사람은 4명뿐이었다. 반면 나머지 조사대상중의 19명이 비슷한 방법으로 매를 맞았다고 답했으나 그 중 아무도 학대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너무 심하다고 여겨지는 체벌도 꼭 학대가 아닐 수 있다는 관찰을 하게 한다. 훈육방법 자체보다는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더 중요한 면일지도 모른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늘 심각한 아동학대를 접해야 하는 사회사업가들은 진심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결심에서 체벌 반대운동을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체벌 그 자체가 해롭다는 주장은 일반 시민 중 일부의 반감을 살 수도 있다.

사회사업가들은 본 조사와 다른 조사들에서 "정상적인" 부모의 대다수가 체벌을 효과적인 훈육방법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본 조사에서 많은 흑인, 한국인과 베트남인은 체벌을 부모의 책임이자 사랑의 행위로 보았다. 교수입, 고헌력 백인들마저도 어느 정도 주저함은 보였으나 거의 80%가 체벌을 효과적인 훈육방법으로 인정하였다. 아동양육관습이나 가치관의 다양성은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문화가 미국 백인문화 배경에서 생각되는 것같이 아동도 이론적인 논리와 의사소통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체벌을 폭력과 동일시하는 것은 생소한 개념으로서 상당한 수의 백인을 포함한 많은 인종집단의 생활규범과 일치하지 않는다.

신체적 학대와 제일 밀접한 관계들 갖고 있는 요인은 부모나 보호자의 스트레스라고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예방이나 치료는 많은 사람들이 정상으로 생각하는 체벌을 해롭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전체 사회와 가정생활에서의 스트레스의 감소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아동을 보호하고 돕고자 하는 사회사업가의 참된 소원은 아동의 부모와

37) Alvy, 1988, *op.cit.*

38) Giovannoni & Becerra, 1979, *op.cit.*

39) J. Daniel, R. Hampton & E. Newberger, "Child Abuse and Accidents in Black Families: A Controlled Comparative Study", in R. Hampton (Ed.), Violence in the Black Family: Correlates and Consequences, Lexington Books, 1987.

R. Hampton, "Race, Class and Child Maltreatment",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Vol. 3, 1987, pp. 126-133.

함께 일하는데 실패하면 결코 효과적일 수 없다. 부모들을 진심으로 수용하고 존중하여 먼저 그들의 동반자가 되지 못하면 도움을 주는 전문가로서 신임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아동학대를 입증하는 조사가 올바르게 시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가정의 스트레스 수준이 한층 상승하여 아동은 더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⁴⁰ 이러한 조사는 경험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충격과 위기의식을 일으켜 무력한 상태에 처하게 한다고 한다. 따라서 원래 가정과 아동을 돕고자 설립된 제도가 실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대단한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⁴¹

그러면 진정 올바른 훈육방법은 어떠한 것이고 아동학대란 어떻게 정의하여야 하는가? 어떤 훈육방법이 옳고 그른가를 정할 권리는 누가 갖고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 개별적인 가족이, 또는 전문가들이, 또는 전체 사회가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얻을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조사로부터 한 가지 점만은 분명히 알 수 있다. 미국에서 여러 인종집단이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규범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동학대문제를 올바르게 다룰 수 없다는 점이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고자 하는 노력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억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족들은 아동의 성질, 아동의 권리, 훈육방법등에 대해 상이한 신념들을 갖고 있다는 것.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편견없는 마음과 태도로 모든 가정을 대하고 아동학대로 의심받고 있는 행동이 그 가정 교유의 문화적인 관습에서 비롯된 경우는 징벌이 아닌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학대 전문가들의 문화적인 이해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올바른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 개입을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지 않을 수 없다. 본조사는 비록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전문가들

40) Faller, 1985, M. Robin, False Allegations of Child Sexual Abuse: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NATO Family Conference, Italy, 1989, February 재인용.

M. Robin, False Allegations of Child Sexual Abuse: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NATO Family Conference, Italy, 1989, February.

41) Faller, 1985, op.cit.
Robin, 1989, op.cit.

의 실무사용을 위한 문화적인 자료개발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에서 발견된 문화의 다양성은 앞으로 이 분야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2. 연구결과가 한국사회사업계에 부여하는 의미

아동학대는 근대화와 산업화에 따른 지역사회와 가족연대감의 붕괴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의 결과로 증가한다고 한다.⁴²⁾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동학대는 한국에서도 머지않아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다. 그럼 당연히 이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한국의 사회사업가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현재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미국사회사업가의 움직임, 특별히 체벌반대운동과 본 조사의 결과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반드시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점이 있다. 사회사업가는 먼저 그의 서비스 대상이 어떤 문화적 배경,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가를 배우는 자세를 갖고 모든 문제를 접근해야겠다는 점이다. 물론 분명히 나쁘다고 밝혀진 행동은 금지되도록 교육하는 것도 전문가의 중요한 책임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정상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뚜렷한 근거없이 오로지 자신의 특유한 문화적 가치관에 기준하여 금지운동을 하는 것은 앞서도 말한 바 있듯이 많은 사람의 반감만을 사는 결과를 낳으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강한 유교의 영향하에서 자식을 자신의 일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한국부모에게는 부모가 자식을 학대한다는 개념조차도 생소한데 체벌을 폭력과 동일시하는 등의 아동학대예방운동은 일반시민으로 하여금 사회사업가에 대한 불신만을 일으키는 결과를 낳으리라 믿는다. 현재 미국의 일반시민 대다수의 규범에 어긋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미국사회사업가협회는 선의의 목표를 갖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스스로도 의식 못한채 전문적인 오만에 빠져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이러한 것을 앞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한국사회사업가들은 이를 교훈삼아 한국인들의 문화와 가치관에 입각한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를 고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아동학대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42) J. Korbin, "The Cultural Context of Child Abuse and Neglect", in C. Kempe & R. Helfer (Eds.), The Battered Child (3rd e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상기하여 가능한 한 사회와 가정내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아동학대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본다. 특히 구미제국 여러문화에서는 서서히 없어져 가는 가족간의 강한 연대감을 한국에서는 아직 찾아볼 수 있다.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러한 장점을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가정의 보호를 통하여 자연히 아동이 보호되는 사회가 되도록 이바지하는 길만이 사회사업가가 진정 한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회사업가가 먼저 서비스의 대상을 올바르게 알고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은 결코 아동학대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정책과 행정적인 차원의 것인지, 임상적인 차원의 것인지를 막론하고 각 사회사업분야는 그 분야의 클라이언트의 입장에 서서 그가 진정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외국의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한국인의 문화와 같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한국인의 성격에 맞게 수정하느냐 아니면 고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미국과 같이 여러 인종집단의 문화배경의 차이같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한국내에서도 거주지역, 사회계층, 종교, 교육수준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여러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각 사회사업가도 위와 같은 여러 요인들의 결정체로서 고유의 문화를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문화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지배한다. 따라서 자신이 늘 당연하게 생각해 온 사고나 가치관이 자신과 다른 문화의 영향하에서 자라온 사람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사고나 가치관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사업가는 많은 경우 악하고 불리한 입장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전문가의 입장에서 오로지 그들을 위해 행동한다는 신념하에 클라이언트의 일상생활과는 동 떨어진 정책, 프로그램 또는 상담을 제공하기 쉽다. 진정으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전문가가 되고 부족한 사회복지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참 고 문 헌

- J. Alfaro, "Child Neglect and Cultural Tradition," Human Ecology Forum, Vol. 12, 1981.
- K. Alvy, Black Parenting: Strategies for Training, Irvington Publishers, Inc., 1988.
- K. W. Bartz & E. S. Levine, "Childrearing by Black Parents: A Description and Comparison to Anglo and Chicano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0, 1978.
- K. Belland, Talking about Touching II, Committee for Children, 1986.
- C. Carillo, "Changing Norms of Hispanic Families: Implications for Treatment", in E. Jones & S. J. Korchin, Minority Mental Health, Praeger Publishers, 1982.
- Child Assault Prevention Training Center of Northern California, Preschool Project Training Manual, CAP Training Center, 1983.
- R. J. Christopher, "Public Perception of Child Abuse and the Need for Intervention: Are Professionals Seen as Abusers?", Child Abuse & Neglect, Vol. 7, 1982.
- J. Daniel, R. Hampton, & E. Newberger, "Child Abuse and Accidents in Black Families: A Controlled Comparative Study", in R. Hampton (Ed.), Violence in the Black Family: Correlates and Consequences, Lexington Books, 1987.
- L. Escovar & P. Escovar, "Retrospective Perception of Parental Child-rearing Practices in Three Culturally Different College Group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 9, 1985.
- R. Garry, "Cambodia", in E. Tepper (Ed.), Southeast Asian Exodus: From Tradition to Resettlement: Understanding Refugees from Laos, Kampuchea and Vietnam in Canada, The Canadian Asian Studies Association, 1982.
- J. Giovannoni & R. Becerra, Defining Child Abuse, The Free Press,

- 1979.
- E. Gray & J. Cosgrove, "Ethnocentric Perception of Childrearing Practices in Protective Services", Child Abuse and Neglect, Vol.9, No.3, 1985.
- R. Hampton, "Race, Class and Child Maltreatment,"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Vol. 3, 1987.
- Hankuk Daily, "Caucasian Boy's Genital Incident Occurs Again", Hankuk Daily, June 23, 1990.
- P. M. Hines & N. Boyd-Franklin, "Black Families", in M. McGoldrick, J. K. Pearce & J. Giordano (Eds.), Ethnicity and Family Therapy, Guildford Press, 1982.
- J. Korbin, "The Cultural Context of Child Abuse and Neglect", in C. Kempe & R. Helfer (Eds.), The Battered Child (3rd e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 R. Lassiter, "Child Rearing in Black Families: Child Abusing Discipline?", in R. Hampton (Ed.), Violence in the Black Family: Correlates and Consequences, Lexington Books, 1987.
- E. S. Levine & K. V. Bartz, "Comparative Child-rearing Attitudes among Chicano, Anglo, and Black Pare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Vol. 1, 1979.
- M. P. Martin, 1977 Analysis of Child Abuse and Neglect Research, 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 U.S. Children's Bureau, Administration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 Office of Human Development Services,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1978.
- M. McGoldrick, "Ethnic Family Therapy: Overview", in M. McGoldrick, J. K. Pearce & J. Giordano (Eds.), Ethnicity and Family Therapy, Guildford Press, 1982.
- NASW News, "Anti-Spanking Campaign Gets Support", NASW News, Vol.34, No.4, 1989.
- Pan Asian Parent Education Project, Pan Asian Child Rearing Practices:

- Filipino, Japanese, Korean, Samoan, Vietnamese, The Pan Asian Parent Education Project, n.d.
- M. Robin, False Allegations of Child Sexual Abuse: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NATO Family Conference, Italy, 1989, February.
- Siv, Personal Communication, 1989.
- K. Song, Defining Child Abuse: Korean Community Study,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86.
- B. Spock, Dr. Spock on Parenting, Pocket Books, 1989.
- R. Staples, "The Black American Family", in C. Mindel, R. Habenstein & R. Wright (Eds.), Ethnic Families in America: Patterns and Variations (3rd ed.). Elsevier, 1988.
- P. Trickett & E. Susman,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rearing Practices in Physically Abusive and Nonabusive Families", Development Psychology, Vol. 24, No. 2, 1988.
- K. Wright, "Sociocultural Factors in Child Abuse", in B. Basas, G. Wyatt & G. Powell (Eds.), Afro-American Family: Assessment, Treatment and Research Issues. Grune & Stratton, Inc., 1982.
- J. Wychoff & B. Uhell, Discipline without Shouting or Spanking, Meadowbook Books, 1984.
- Y. Ying, Personal Communication, 1988.